

광주시 내년 예산 5.7억... 키워드 #AI #2호선 #일자리

올해보다 6290억 증액 편성
복지·보건 39.8%로 큰 비중
인공지능 중심도시에 502억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중심도시 만들기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형 일자리 만들기 등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할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예산으로 5조7120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11일 2020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4%, 6290억원이 증액된 5조7120억원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조5670억원, 특별회계 1조14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정책기조에 맞춘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정적 뒷받침을 했다.

내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858억원(9.9%) 증액된 2조564억원, 국고 보조금과



예산설명하는 김광휘 기초실장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3293억원(12.6%) 증액된 2조9356억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보건 예산이 3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교통 및 물류가 25.1%, 공공질서 및 안전이 23.9%, 환경이 19.4% 순이다.

일반 공공행정은 7.6%, 교육예산은

11.3%, 문화 및 관광이 7.6%, 경제예산이 5.9%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세출예산은 풍요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 품격있는 광주,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광주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를 위해 정부예산 426억원 등 50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274억원을 반영해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에 98억원,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에 40억원, 노동인권회관 건립에 20억원,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에 5억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2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시정의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 본예산 8083억원 대비 1159억원(14.3%) 증액된 9242억원을 반영했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830억원을 책정했다.

친환경자동차산업 339억원, 문화콘

텐츠산업 219억원, 스마트 뿌리산업 56억원, 의료·헬스케어산업 46억원, 에너지·수소산업 41억원, 에어가전·공기산업 37억원, 관광산업 28억원 등이다.

지난 9월 5일 착공식을 가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 2조1761억원 중 내년 예산으로 1017억원을 반영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광주청년드림수당 32억원,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9억원, 초·중·고교 및 유치원 무상급식 102억원, 세계수영대회 레거시사업 13억원 등의 예산도 책정했다. 광주시의 지방채무는 2020년 8292억원으로 2016년 9550억원 대비 1258억원 감소하면서 채무비율이 13.3%로 전망된다.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은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총 620개 사업, 1184억원을 접수했으며 심의를 통해 총 37건, 79억원으로 확정했다.

/전남=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평택해양수산청은 11일 전곡항에서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평택해수청, 현장서 해양안전 캠페인 실시

평택해양수산청은 11일 화성시 전곡항과 궁평항에서 가을 행락철 관광객 및 소형선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육상의 도로교통 표지 역할을 수행하는 항로표지 소개 ▲구명조끼 착용법 ▲소형선박 항행참고용 앱 '해로드(海Road)' ▲선박 항행안전 기본 수칙 등을 홍보했다.

해양안전 홍보효과 증대를 위해 평택해수청 직원들은 직접 구명조끼를 착용해 구명조끼에 부착된 호루라기, 부착등 사용법을 일반인에게 소개했다.

또한 등부표 모형도 전시 및 등명기

작동 등을 통해 소형선박 이용자의 항로표지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등명기는 광포표지(등대, 등부표 등)에 사용하는 등기구로써 전구 또는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나온 빛을 렌즈 또는 반사경을 이용하여 굴절 반사시키는 조명기구이다.

김태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택·당진항 인근 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항로표지를 포함한 안전정보를 이용객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범국민 해양안전 의식 증진에 힘쓰겠다"며, 선박 이용자에게 "바다에 나갈 때는 해로드(海Road) 앱을 스마트폰에 꼭 설치하고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광주 300인 미만 업체 절반, 주52시간 준비 無

건설 등 비제조업, 준비 가장 부족해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부정적 65%

광주지역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대응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 9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53.4%가 대응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5.6%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고, 7.8%는 대응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30.0%는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있고,



/뉴스IS

16.7%는 시행 시기에 맞춰 도입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50~99인 사업장의 60.9%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준비 정도가 가장 미흡했으며, 100~199인 44.8%, 200~299인 53.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근로시간 변동 가능성이 큰 건설업과 물류업 등이 포함된 비제조업체가 73.4%로 준비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49.3%로 조사됐다.

지역 기업들이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가운데 현재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업체는 66.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의 평균 초과근로자 비중은 약 35.9%로 조사됐다.

직군별 초과근로자 비율은 생산직 75.4%, 연구·개발직 5.8%, 사무직 4.3%, 영업직 1.4% 순으로 많았다.

향후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업체의 65.6%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것'이라는 답변은 14.4%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예상한 이유는 '생산 차질로 납기 준수 곤란'(46.3%), '실질임금 감소로 숙련 근로자 이직 우려'(23.9%)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차정준 기자

인천 중구, 지방자치 경쟁력 전국 최고수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발표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인천 중구가 '전국 최고수준'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입증했다.

중구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 경영활동 부문 경쟁력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혁신적 성장을 이룬 최고의 지자체로 평가받으면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24년째인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계청, 정부부처, 관련기관의 공식자료를 분석해 우수 지자체를 발표한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경쟁력 부문에서 553.14의 점수를 받아 광주 북구(560.22)에 이어 9위에 선정돼 5년 연

속 상위 10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연구원은 인천 중구가 종합경쟁력에는 17단계가 상승해 9위, 경영활동에서는 15단계가 상승해 8위, 경영성과에는 16단계가 상승해 9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자치구 중 최고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다.

특히, 공공행정, 지방행정, 생활환경, 지역경제 등 4개 영역으로 평가되는 경영활동 부문에서 전국 자치구 중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을 보여 '경영활동 혁신적 성장 1위'로 평가받았다. 구는 최근 입지 중심적인 과거를 활용한 발전 전략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으로 해법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전남도의회, 탄원서 제출 이재명 경기지사 선처 호소

전남도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54명과 민주당 당 2명, 정의당 2명 등 58명 의원 전체 명의의 탄원서를 최근 대법원에 보냈다.

전남도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는 그동안 신규 정책 도입과 진취적 행정 추진으로 도민과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우리나라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와 지역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손실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남=차정준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8 | 해짐 / 17:24

11월 12일 (화)
음력 : 10월 16일

수도권 날씨 6 ~ 1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0/13, 동두천 2/14, 가평 0/13, 양평 2/14, 용인 6/15, 수원 6/15, 평택 3/15, 파주 0/14, 서울 6/16, 인천 7/14, 백령도 10/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